

-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-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 말    제목: 성공을 부르는 신비한 말

성경: 잠언18장20-21절

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

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(잠18:20-21)

말에는 힘이 있다.

하나님은 말씀(말의 높임말; 말씀은 더 큰 힘이 있다.)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.

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가 들어있다. 이 파워가 곧 물질을 생성시키는 파워이다.

말은 소리와 비슷하나, 소리에 영성이 들어가야 말이 된다. 소리만 크다고 그것이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. 거기에 영성, 곧 지식이나 정보, 감정이나 선악의 의도나 기술, 능력, 힘, 인격 등이 들어가야 말이 된다.

생물들도 일종의 정보를 표현하기는 한다. 그러나 그들이 창조적인 말을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없다.

사람에겐 말이 중요하다.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.

말이 삶을 바꾼다.

생각이 곧 말이 되지만, 모든 생각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.

또 힘이 강력한 말은 따로 있다. 강력한 말,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말을 개발하고 훈련하자.\*

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혀의 말로 결정된다.

자기가 그렇게 말하고,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.

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. 어떤 사람은 이 귀중한 말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다. 마귀가 이 사람의 혀를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악한 말을 뱉어낸다.

욕을하고, 비방하고, 거짓을 말하고,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.

-그러면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.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당한다.

6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

특히 비판하고 원망하고, 부정적인 말을 해 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, 그 영혼을 옳아매는 족쇄가 된다.

7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

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.

19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

입술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자.\*

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 드리자.\*

사람의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.

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, 그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있다.

말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.

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뀌게 한다.

말이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 낸다.

인생은 바다, 사람은 배, 말은 그 배의 방향키와 같다.

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

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말이고,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만족을 얻게 된다는 뜻.

해석은 달리하면 무익하다.

성경은 대부분 문맥으로 해석해야 한다. 말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, 단어가 곧 말은 아니다. 단어는 정보일 뿐이고 더구나 여러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다.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문장을 이루어야 하고, 문장은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.

말도 마찬가지다. 누가 말했는지, 언제 말했는지,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, 말투가 어떠한지, 의도가 무엇인지, 그 결과가 무엇인지,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열매가 적으면 말을 바꾸어야 한다.

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.

더 건강한 말, 더 건강한 생각\*

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(잠18:20-21)

혀의 힘, 말의 힘을 뜻함.

말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.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.

말의 DNA는 좋으나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.

말에 힘을 실어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훈련.

나는 특별하다. 나는 잘 진행하고 있다. 나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.

왜냐면 나는 가장 좋은 선하고 좋은 말을 훈련하기 때문이다.

나는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말을 훈련할 것이다.

나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.

나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.

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.

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.

나는 순종하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.

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.

<찬양예배>

주제: 덕담      제목: 설날 덕담      말씀: 야고보서 3장6-10절

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

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

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

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

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(약3:6-10)

명절에 민감한 말, 대단히 신경쓰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말.

-진로에 관련된 이야기.

-사업에 관련된 이야기.

-관계에 관한 이야기.

-결혼에 관련된 이야기.

-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긍정적이고, 밝은 이야기.

-충고나 은근히 가르치려 하거나, 자랑하려 하거나, 무시하려 하거나 하지 말자.

-6. 혀는 곧 불. 불의의 세계. 혀는 온 몸을 더럽힌다.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. 막심한 손해.

-무시하는 말을 버리자.

-충고하는 말을 버리자.

-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.

-8.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. 오직 하나님만 혀를 길들이신다.

-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,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떨며 그 은총을 사모하자.

-하나님 내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.

-내 속에 마귀의 우물을 훼파합니다.

-하나님의 생수가 터질지어다.

아멘.